

지상파 방송사 전시부스

변화를 통한 국민 감동, KBS

공사 창립 45주년을 맞이한 KBS는 '변화를 통한 국민 감동'을 2018년도 경영 목표로 정하고 지상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UHD TV 서비스,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요구하는 콘텐츠와 유료 상업 방송이 제공할 수 없는 보편적 공익 서비스를 확대하며, 활짝 핀 UHD TV 시대를 선도해 가고 있는 모습을 KOBIA 현장에서 선보였다.

KBS는 이번 KOBIA 2018 전시회에서 자체 기술로 연구·개발한 출력작과 지상파 UHD TV 플랫폼 TIVIVA 2.0 서비스를 홍보 및 시연하고, 시청자 중심의 전시와 시연을 통해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수신료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지상파 4사 중 유일하게 전용 전시관을 운영했다. 전시관은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주요 아이টে은 다음과 같다.

UHD 부문

첫째, UHD 부문으로 세계 최초의 지상파 동영상 서비스인 'UHD 홈포털 TIVIVA 서비스', 고정형 UHD 및 고화질 HD 방송을 실내외 어디 서나 수신 가능한 'UHD 모바일 서비스 시연', 기존 SDR 대비 확장된 명암비로 고품질 실감 영상을 즐길 수 있는 'UHD HDR 영상 시연',



관람객에게 UHD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설명 중인 전성호 KBS 연구원



지상파 UHD 방송으로 VOD 등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TIVIVA 서비스





KBS 방송장비인증센터 소개



UHD 코리아의 지상파 UHD 방송 직접 수신

딥 러닝을 접목한 UHD 이동형 RF 측정 시스템인 'UHD 방송 서비스 최적화 솔루션', 가상현실(VR)에서 체험하는 UHD 부가서비스인 'UHD 가상현실 사용자환경 서비스' 등을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공적 책무 부문

둘째, 공적 책무 부문으로 국산 방송 장비 산업의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KBS 방송장비인증센터'는 Lab 기반의 표준규격 인증과 실제 방송환경에서 필드테스트를 통한 현장 적합성 시험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방송장비 인증기관이다. 국내 방송장비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협력개발, 산업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하며 현재까지 인증을 마친 장비는 70여 개에 이른다. KOBA 전시 현장에서 인증센터와 관련한 절차나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UHD KOREA'에서는 전용 부스 운영을 통해 지상파 UHD 방송 직접 수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범용 UHD 셋톱박스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개인이 유럽식(DVB-T2), 해외(직구), 중소기업 UHDDTV에서 지상파 UHD 방송 시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방송공동수신설비에 1대의 UHD 신호처리기를 설치하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UHD 신호처리기는 3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IF Type과 700MHz 대역형은 현재 출시되었고, Remodulator Type은 현재 ETRI에서 2018년 하반기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미래 방송 환경 부문

셋째, 미래 방송 환경 부문으로 빅데이터, AI 기반 데이터 저널리즘을 구현한 '빅데이터, AI 활용 뉴스 분석 시스템'을 선보였고, 실시간 얼굴 인식 및 그래픽 합성 시스템 '카모카모'를 통해, 여러 가지 그래픽 효과를 이용한 보다 재미있고 실감 나는 방송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특수 제작 장비 와이어캠 시연'을 통해 대형 이벤트 등 다채로운 영상이 요구되는 미래 방송 환경에 최적화된 촬영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KBS의 미래 방송 서비스



특수 제작 장비 와이어캠 시연

the NEXT CBS

지난 60여 년 동안 방송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담아내는 창 의 역할을 감당해온 CBS는 ‘the NEXT CBS’라는 주제로 전시 부스를 ‘하이브리드 라디오’, ‘라디오 신청곡/선곡 분석 프로그램’, ‘CBS 시네마’, ‘레인보우 레이니’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정보제공과 관람객 참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하이브리드 라디오

이번 전시에는 스마트폰으로 FM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라디오에 대해 그동안 국내에서 추진해온 상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CBS는 지난 2년 동안 KOBA 전시회에서 하이브리드 라디오를 주제로 전시하며 스마트폰 FM 수신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국내에서 출시되는 삼성전자, LG전자 스마트폰을 통해 FM 라디오 방송의 수신이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 출시된 삼성 갤럭시 S9, S9+ 와 LG X4에 FM 수신기능이 탑재되었다.



라디오 신청곡/선곡 분석 프로그램

지난해 KOBA 전시회에 선보여 큰 관심을 끌었던 ‘CBS 라디오 청취자 신청곡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AI 신청곡 실시간 분석 프로그램’과 ‘CBS 선곡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전시했다. AI 신청곡 실시간 분석 프로그램은 문자, 레인보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게시판을 통해 올라온 CBS 라디오 청취자 사연 중 신청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출하고 이를 채널별, 프로그램별, 날씨별, 계절별, 성별, 연령대별로 분석하여 제공한다.

CBS 선곡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신청한 노래와 방송된 노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채널별, 프로그램별 청취자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이브리드 라디오의 과정과 현재를 설명



신청곡 분석과 분석 시스템

CBS 시네마

CBS 시네마 섹션에서는 작은 영화관을 마련하여 곧 개봉하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3’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모아 10분짜리 영상으로 준비했다. 영화관 입구에서는 팝콘과 음료를 제공하여 전시장을 둘러보며 지친 관람객에게 잠시 휴식을 제공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CBS 영화 콘텐츠와 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CBS 시네마닷컴 OTT 서비스도 시연했으며, 휴대용 프로젝트 빔 'CBS 시네마 빔'도 공개하며 관람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레인보우 홍보용 캐릭터 - 레이니

CBS는 또한 스트리밍 라디오 앱 '레인보우' 홍보용 캐릭터인 '레이니'를 이용하여 CBS 미디어 콘텐츠를 알렸고, 부스 방문객을 상대로 이벤트를 통해 레이니 머그잔과 경품을 주는 행사 등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상영



레인보우 홍보용 캐릭터인 '레이니'

KOBA TV로 UHD Live,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



여러 패널을 통한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대담 진행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와 함께 지난해 처음 선보인 KOBA TV를 재조명하며 국산 방송장비로 이루어진 UHD 방송 워크플로우를 전시하고, 즉석에서 UHD 방송을 제작했다. UHD STUDIO와 PRODUCT, EDIT, TRANSMISSION 일련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구성하여 방송제작 현황을 알기 쉽도록 꾸몄다. 부스 한쪽에는 UHD 모바일 방송 서비스 시연을 통해 곧 다가올 UHD 부가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UHD STUDIO에서는 각 방송사의 방송기술인과 관련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날의 방송기술과 미디어의 방향에 대한 대담이 이루어졌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KOBA 전시 현장을 그대로 담았다. 📺



UHD 방송 워크플로우를 한눈에 전시